

Excellent Graduate of the 33rd Packaging Professional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1주간 제31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진행하고 105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번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김성관 SK종합화학 과장이 총 1백점 만점에 95.5점을 획득해 최고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김명영 (주)시디즈 제품기술팀 반장은 94.1점으로 2등, 김민규 뉴팩코퍼레이션 주임이 91.1점으로 3등으로 수료했다.

다음에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들로부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플라스틱 포장재 및 소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 성 관
SK종합화학 과장

Q. 먼저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좋은 성적을 내겠다 생각하고 공부한 것이 아니었기에 좀 얼떨떨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신선한 이벤트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매주 밤늦게, 그리고 주말에도 일정에 쫓기면서 과제를 작성하느라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현재 SK종합화학 Packaging사업부에서 패키징에 사용되는 폴리머(Polymer) 원료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폴리머 중합 및 합성하는 연구를 약 10년간 수행했었고, 지금은 그 폴리머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리머를 연구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이 그 제품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저를 더 찾아주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저에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고, 고객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기보다는 플라스틱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소재가 가져다주는 보관의 유용성, 유통기한을 늘려줌에 따른 음식물 폐기량 저감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들은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포장재 및 그 소재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폴리머를 오랜 기간 공부하고 다루면서 그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Biz. 방향을 제품 중심에서 용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패키징이라는 용도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폴리머 외의 패키징 소재들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쟁 소재이기도 하니까요.

패키징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폴리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패키징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들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포장기술에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후배를 통해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매주 주재별 1개의 과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공부하면서 과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온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기도 했고요.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아빠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것은?

A. 자료집만 전달해주고, 교육생 각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과제를 작성해야 하는 방식이라서 과연 공부가 되는지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내용을 타이핑하고 자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부가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관련된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패키징 관련하여 소재별, 분야별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들이 담긴 서적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통신 교육 자료는 앞으로 패키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고두고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서 현재 업무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폴리머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폴리머가 패키징 분야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로 버려져서 환경을 파괴하고 야생 동물들의 뱃속에까지 들어가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포장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포장기술사 공부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포장상자 개발이 목표”



김명영
(주)시디즈제품기술팀 반장

Q. 먼저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포장기술관리사라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 본사 대표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

습니다. 3개월 이상 교육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포장협회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포장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한국포장협회의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수성적 수료자라는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 교재를 토대로 학습한 거밖에 없는데... 얼떨떨합니다.

과거에는 포장을 간단히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포장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제품기술팀에서 간단한 제품 설계(3D), 신제품 샘플 제작, 생산에 필요한 지그 설계 및 제작 등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제품 개선 업무도 다른 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포장박스 담당자가 돼 포장박스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포장박스 담당이 되었는데, 포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업무 진행도

더디고 전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처(박스 제조사)에 매일 문의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포장관련 교육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을 찾아보다가 눈에 들어온 게 (사)한국포장협회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내용과 일정을 검토해보니 업무와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큰 에피소드는 없었는데요, 본사의 다른 부서원이 교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각자 공부하고 과제를 작성한 뒤 서로 과제를 검토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도 하고 지식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유대관계도 생겨서 좋았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것은?

A. 교육을 진행하면서 포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포장의 소재, 가공, 기계, 잉크, 제판, 성형, 식품, 금속, 기타 등 생각치도 못했던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박스포장이 대부분이어서 포장은 박스포장으로만 국한해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다른 방식이나 재료를 접목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단품, 작은 소물자재 등도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파렛트 적재와 이동에 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영상 강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포장 초심자라 교재에 있는 그림과 표를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를 설명 해주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앞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장박스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제품을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는 포장박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포장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포장협회에서도 좋은 정보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포장에 대한 많은 정보·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김민규
뉴팩코퍼레이션 주임

Q. 먼저 제33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기술관리사의 우수성적 수료자로 선정돼 얼떨떨합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릴 만큼 열심히 했는지 부

끄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자랑스러운 마음도 같이 생깁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겠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식품 포장재를 취급하고 있는 FLAIR Flexible Packaging Corporation의 생산 Plant인 뉴팩코퍼레이션(유한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은 Flair이지만 내수시장 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팩코퍼레이션에는 2015년 입사하여 현재는 품질관리 팀 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회사의 주 생산품인 연포장에 대한 많은 정보, 지식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원했습니다. 연포장 외 다른 분야의 기술 등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주어졌고 업무 외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 걱정도 했지만 노력과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교육에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A. 교재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논문 작성 방법인데,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키보드 입력 속도가 현저히 상승된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협력 업체 등 다른 회사를 방문할 일이 있거나 주말에 다른 공장 주변을 돌아다닐 때에 교육 전에는 무심히 스쳐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생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더 주의 깊게 볼만한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것은?

A. 논문작성 방식 중 자필 작성 문항을 1~2 문항 정도는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필 문항이 확실히 기억에 더 잘 남으며 일반 문항보다 더 집중하여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때에 비대면 교육은 확실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직접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인해 준비된 교재를 더 주의 깊게 검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선 포장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항상 주변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